

제목: "주님을 찬양할 이유는?"

말씀: 시편 34편 1-22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습관에 젖어 살아 있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기 보다는 해 왔으니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에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찬양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1. 우리의 음성을 _____ 계시기 때문입니다.
2. 우리의 움직임은 _____ 계시기 때문입니다.
3. 우리를 늘 _____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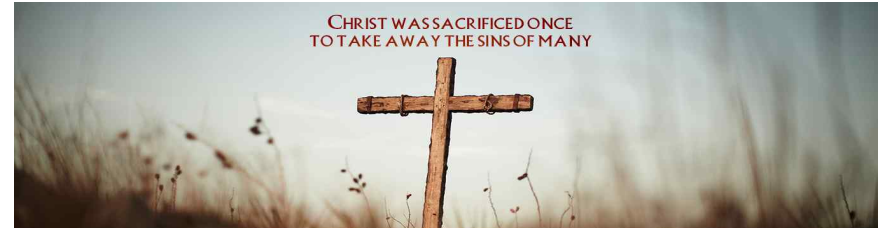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시편 34편 1-22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Palm 34 1-22 구약 825 페이지 Presider
- 말씀 "주님을 찬양할 이유는" 김성민 목사
 Message Let's Praise the name of the Lord Rev. Kim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보라 너는 두려워 말고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100년 후에는)

나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그 중 클래식 음악은 어려서부터 늘 함께 했다. 음악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부모님의 열심에 밀려서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클래식 음악을 즐기게 되었고 나름대로 참 좋아하게 된 곡들이 여러 곡 된다. 그런데 지난 주 갑자기 앞으로 100년 뒤에도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을 즐기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명기라고 이야기 하던 바이올린이나 첼로와 같은 악기들이 노화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 때가 되면 우리의 몇 대 후손들에게 관심을 줄 만한 음악과 악기들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전자 악기들이 더 많이 생겨나서 악기를 다룰 줄 몰라도 그 악기의 소리를 만들어내기에 어렵지 않은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가서는 그 세대를 가르칠 만한 선생님이 있지도 않을 것 같다. 그러니 100년 후에 클래식 음악은 점점 없어지든지 아니면 관심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지 않을까? 지금 이 세대에 베토벤과 같은 음악가가 없고 유명하다고 하는 연주자들이 이전과 같지 않다.

그런데 교회와 신앙은 어떻게 될까? 100년 후에 기독교는 어떠한 모양으로 남아 있게 될까?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또한 목사나 선교사는 어떻게 될까? 성도들은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성경은 어떠한 모습으로 영향을 미칠까? 참으로 궁금하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분명하게 짐작할 수 있는 미래다.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민 교회를 20년 정도 본다. 그 때가 되면 내가 80세가 되기 때문이다. 그 때에도 비전을 내세우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외치고 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더 이상 힘이 없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의 상태라고 한다면 많은 이민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그들도 나이를 먹고 늙어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세대가 끊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교회에는 7-80대가 가장 젊은이들 될 것이고 가장 젊은이들이 의자를 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경은 어떻게 될까? 아마도 지금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그때가 되면 성경이 없어도 교회에 나온다고 하고 성경 말씀을 몰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지 않을까? 어두운 상상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2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고 100년 뒤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습은 어둡고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리라 믿는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때가 되기 전에 약속하신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걱정은 없다. 그런데 우리는 20년을 내다보면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100년을 내다보며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21장 22절)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지금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버티며 모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다가 보면 20년의 준비와 100년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어 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인 것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오늘은 예배 드린 이 장소에서 계속해서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개척교회에 새로이 세례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7월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씩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